

# 새봄을 깨우는 런닝맨들 광주 도심 달린다



‘호남 마라톤의 대명사’ 광주일보 3·1절 전국 마라톤대회 결전의 날이 밝았다. 올해로 48회째를 맞는 이번 대회는 금남로와 광주 월드컵 경기장, 영산강변 일원에서 펼쳐진다.

## 광주일보 3·1절 전국마라톤 오늘 오전 8시40분 ‘스타트’

### 풀·하프코스 문화전당 출발...볼거리 놀거리 먹거리 풍성

3·1 전국 마라톤대회 48번째 질주가 광주 도심을 수 놓는다. 광주일보가 주최하는 제48회 3·1절 마라톤대회의 막이 올랐다. 지난해 부활한 명품 풀코스는 올해도 전국 마라토너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전망이다. 3·1 마라톤 풀코스는 옛 전남도청을 출발선으로 해 호남의 젓줄 영산강을 달린 뒤 광주월드컵 경기장으로 이어진다. 이번 대회부터는 하프코스도 옛 도청에서 출발해 도심의 질주가 더욱 뜨거워진다.

오전 8시40분 스타트 총성과 함께 3·1 마라톤의 질주가 시작되며, 풀코스와 하프 코스 참가자들의 도전도 막이 오른다. 10km와 5km는 광주 월드컵경기장 인근을 순환해 다시 광주 월드컵경기장으로 들어오는 코스로 진행되며, 각각 오전 9시10분과 20분에 출발한다. 건강한 새봄의 질주를 위한 만반의 준비도 끝났다. 참가자들의 건강을 위해 구급차 9대가 곳곳에 배치되며 페이스 메이

커 ‘광화문 마라톤 모임’과 레이스 파트너를 요원인 ‘노란 자전거’도 건강하고 유쾌한 질주의 도우미로 함께 한다. 또 가족들이 한데 어울릴 수 있는 먹거리촌이 운영되며 전국 마라톤 동호인들의 축제의 한마당이 연출될 전망이다. 이번 대회에서는 5km를 제외한 각 부문별 1~45위까지 시상이 이뤄지며 원양부상상, 포토제닉상, 행운상도 풍성하게 마련됐다. 최적의 날씨가 광주를 찾는 마라톤

너를 받는다. 대회가 열리는 1일 오전 광주는 흐린 가운데 최저기온 3도, 최고기온 9도의 날씨가 예보됐다. 다소 쌀쌀한 것으로 보이지만 마라톤을 하기에는 최적의 날씨가 될 전망이다. 아빠의 손을 잡고 봄을 달리는 어린이들에서부터 나이를 잊은 어른들의 ‘화합의 질주’, 서브 3(3시간 내 에 풀코스 완주)에 도전하는 ‘경쟁의 질주’, 한해의 각오를 다지는 ‘희망의 질주’ 등 5000여명의 참가자들은 다른 각오와 사연으로 이번 대회의 주인공을 꿈꾸게 된다. 한편 이번 대회는 광주일보와 광주시·전남도가 공동주최하며 광주시생 활체육회·전남도생활체육회·광주육 동맹체육회·전남육상경기연맹이 공동 주관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우리도 함께 뛰다”



광주시야구협회 관계자들이 3·1마라톤의 힘찬 질주를 다짐하며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김주형 미국·중국 돌아 오키나와로

### 2군서 정신무장 1군 재합류

KIA 타이거즈의 내야수 김주형(28)이 먼 길을 돌아 지난 28일 일본 오키나와에 입성했다. 눈물의 중국 전지훈련 끝에 선동열 감독의 부름을 받아 1군 캠프에 재합류한 것이다. 미국 에리조나 캠프에 참여했던 김주형은 2월1일 선수단보다 먼저 집을 꾸러 중국 징흥으로 향했다. 원래 일정대로라면 2월9일 동료들과 일본 오키나와로 건너가는 것이지만 ‘더 강해져야 한다’는 선 감독의 방침에 따라 한대화 2군 총괄코치가 지휘하는 2군 중국 캠프로 보내졌다. 중도탈락이라는 결과에 눈물을 삼킨 김주형은 비행기를 4번이나 갈아탄 고행길 끝에 중국에 짐을 풀었다. 훈련은 혹독했다. 선 감독의 ‘비밀 주문’에 따라 한 총괄코치는 김주형에게 더 강도높은 훈련을 주문했다. 그리고 지난 27일 마무리된 2군 중국 캠프. 한 총괄코치의 오케이 사인



김주형

이 나면서 김주형은 광주행 버스가 아닌 일본행 비행기에 올랐다. 미국·중국을 돌아 일본으로 향할, 이번 겨울 11번째 비행이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선 감독의 1차 비밀 테스트에 통과한 김주형은 1일 한화전을 시작으로 SK·LG·삼성의 연승경기에 출격해 2차 검증에 받게 된다. 김주형은 “어느 때보다 열심히 훈련을 하고 마음을 다잡았다. 다시 찾아온 기회는 놓치지 않겠다. 캠프가 1주일 정도 남았는데 달라진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한편 ‘썬바 잠수함’ 박준표(21)도 오키나와 캠프에서 선 감독의 마음을 두드린다. 중국 캠프에서 위력적인 공을 선보인 2013 투기 박준표는 한 총괄코치의 적극적인 추천으로 1군 캠프에 뒤늦게 합류했다. 중국 캠프에서 직구 스피드는 130km 중반을 기록했지만 공의 움직임이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준표는 “마운드에 서는 게 재미있다. 즐긴다는 생각으로 부담없이 내 공을 던지고 돌아오겠다”고 오키나와 합류 소감을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2013 성인멤버십 회원 홈비 T클럽 회원 모집 KIA 타이거즈

KIA 타이거즈가 2013시즌 성인 멤버십 회원과 홈비이지 T클럽 회원을 모집한다. 멤버십 회원 모집은 내달 4일부터 구단 홈페이지(www.kiatigers.co.kr) 팝업창을 통해 선착순(3000명)으로 이뤄지며 가입비는 8만원이다. 멤버십 회원에게는 점퍼와 모자, 링크 담요, 팬북, 회원증이 가입 기념품으로 주어진다. 또 경기결과를 SMS를 통해 받아볼 수 있으며, KIA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예매시 본인 1매의 경우 탁자지 정석(중앙, 1루, 외야)을 제외한 나머지 좌석에 한해 2000원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13시즌 홈비이지 ‘T클럽’ 회원 모집 인원은 1000명이며 가입비는 2만원이다. T클럽은 1년 회원제로 운영되며 타이거즈 머그컵 세트(컵 2개)가 기념품으로 마련됐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광주야구 중흥 위해 힘찬 질주

### 광주시야구협회

제2회 야구중흥을 외치는 광주시야구협회가 3·1 전국 마라톤대회에 출전해 힘찬 질주를 펼친다. 광주시야구협회(이하 협회)는 올 시즌 나훈 송정농협조합장을 회장으로 해 제10대 임원진을 꾸렸다. 광주일고 출신의 나 회장은 KIA 선동열 감독의 야구 스승으로 지난 1998년 3대 협회장을 지내기도 한 인물. 그동안 협회 안팎으로 논란이 계속되며 부침을 거듭하자 나 회장은 14년 만에 야구계에 복귀했다. 제10대 광주시야구협회의 운영 목표는 ‘제2의 야구 중흥’이다. 환골탈태의 자세로 새 출발을 다짐한 만큼 협회는 3·1 마라톤에 출전해 ‘새 봄의 질주’를 하며 시민들과 소통하고 또 내부 결속을 다질 계획이다. 또 오는 9일 기록감승회를 시작으로 실재 없이 대회와 행사

가 이어지기 때문에 이들에게 체력은 필수. 달리기로 건강한 한해를 시작하겠다는 각오다. 박병석 전무는 “환골탈태하는 자세로 야구 매카 광주지역의 제2의 야구 중흥을 위해 새로 출범했다. 이번 3·1 마라톤은 광주 지역 야구인들이 새 각오를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건강한 협회의 모습을 시민들에게 보여드리고, 물심양면으로 지역 야구 꿈나무들과 야구팬들을 위한 지원을 펼쳐도록 하겠다”고 대회 참가 소감을 밝혔다. 협회는 새 출발을 위해 심관진을 전면 개편하고 심판 아카데미를 통해 이론, 실전 훈련, 소양 평가 등 강도 높은 훈련을 진행했다. 대한야구협회에서 주관하는 전국 시·도 지역 야구협회 심판부 전달감승회에도 심판부 전원이 참석하는 등 심판부 강화를 위해 힘을 쏟고 있다. 또 오는 9일부터 10일까지 이를 동안 제2기 야구기록감승회를 개최

한다. 농협중앙회 광주지역본부의 후원 속에 열리는 이번 감승회는 선수 및 야구팬들에게 한 차원 높은 야구 관련 문화를 제공하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새로 꾸려진 임원진들도 적극적으로 야구 부흥을 위해 힘을 더하고 있다. 이들은 자발적으로 기부금을 내는 등 광주지역 16개 초·중·고·대학교 야구팀들이 경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나훈 회장은 “지역 야구 발전을 위해 마지막으로 힘을 쏟는다는 생각으로 협회를 꾸려가고 있다. 농협중앙회 광주지역본부의 적극적인 후원을 받아 전국 최초로 심판부 전원이 감승회에 참석했고, 지역팬들이 한 차원 높은 야구를 접할 수 있도록 야구감승회도 준비했다”며 “광주지역이 야구의 메카로서의 명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전임원진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p>기차표/항공권/승선권 국제선 할인항공권 판매</p> <p><b>(주)대원여행사</b></p> <p>062)526-7000</p> <p>신세계백화점 사거리 www.daewontour.com</p> <p>광주역 525-4835   송정역 941-3278</p>	<p><b>영주 부석사</b> 선비촌 기차여행</p> <p><b>출발일</b> 3월 22일(금) 23:50경 광주역 출발(무박 2일)</p> <p><b>여행비</b> 68,000원</p> <p><b>여행코스</b> 부석사/소수서원/소수박물관/선비촌/죽령옛길/풍기인삼시장 및 5일장</p> <p><b>포함사항</b> 무궁화호 왕복 열차비, 버스비, 입장료, 여행자보험료</p> <p><b>불포함</b> 식사비</p> <p><b>특전</b> 영주시에서 인삼비누 세트 증정(15,000원 상당)</p>	<p><b>진해군항제</b> 벚꽃축제 기차여행</p> <p><b>출발일</b> 4월 4일(목) / 4월 9일(화) 광주역 출발(당일)</p> <p><b>여행비</b> 37,000원</p> <p><b>여행코스</b> 해군사관학교/해군기지사령부/여좌천(내수면연구소)/제항산공원</p> <p><b>포함사항</b> 무궁화호 왕복 열차비, 여행자보험료</p> <p><b>불포함</b> 식사비</p>
--	---	---